10월 첫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10월 첫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차분히 준비합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10월 첫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의 분주함과 마음의 소음을 내려놓고, 찬양과 말씀 앞에서 다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리로 모시길 원합니다. 아래 기도문을 교회 상황과 설교 주제에 맞게 다듬어 사용하시며, 회중이 한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해 보세요. 10월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을 더 우선하게 하소서.찬양이 끝난 뒤에도 우리의 마음이 쉽게 식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 주는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10월 첫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1 예배의 문을 여는 고백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1)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우리를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습관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모임을 주장하셔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은혜의 강가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의 자리에 앉았으나 마음은 여전히 걱정과 계획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우리가 진짜로 갈망하는 분이 누구인지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 쌓인 피곤과 상처가 예배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숨을 고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찬양대와 찬양팀의 수고를 붙들어 주옵소서. 각자의 기술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앞서게 하시고, 회중의 입술과 마음이 하나 되어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상한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지친 성도에게 새 힘을, 낙심한 이에게 소망을, 흔들리는 가정에 평강을 부어 주셔서, 오늘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새가족과 오랜만에 예배에 나온 이들도 편안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각자의 언어로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10월 3일을 지나며 이 땅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교회를 향한 불평이 기도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드린 찬양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한 주의 말과 선택 속에서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감동이 지나간 감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받은 은혜가 내일의 순종으로 번져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첫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2 회개로 마음을 씻는 기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요한일서 1:9)

자비로우신 주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우리를 정직하게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변명보다 회개로, 체면보다 진실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 앞에 쉽게 꺾이고, 다시 쉽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겉으로는 괜찮다 말했지만 속은 쉽게 무너졌고, 말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가까운 사람에게는 차갑게 굴었습니다. 우리의 이중된 마음을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서 숨김없이 돌이키게 하옵소서. '괜찮다'는 말로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약함을 인정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비교와 시기, 미움이 자라던 마음을 씻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잊을 때마다 우리는 쉽게 교만해졌습니다. 주님,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쌓인 분노를 내려놓게 하시고, 상처를 핑계로 죄를 붙잡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먼저 사과해야 할 자리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용서가 어려운 마음에는 주님의 온유를 부어 주셔서, 악순환이 끊기고 화평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님, 회개가 눈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말 한마디를 다르게, 한 번의 선택을 다르게 하며, 작은 순종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성경 한 장, 기도 한 번, 감사 한 마디를 통해 하루의 결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예배로 정돈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새 출발이 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손을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회개로 시작한 이 예배가 감사로 마무리되고, 감사가 다시 거룩한 습관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첫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3 교회와 목회자를 세우는 기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18)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늘 묻게 하시고, 보이는 성과보다 보이지 않는 성품을 먼저 세우게 하옵소서. 주님,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에게 말씀의 담대함과 마음의 겸손을 더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시간마다 성령의 조명이 있게 하시고, 지친 심령에는 위로를 주셔서 사명이 기쁨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목회자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시고, 외로운 자리에서 주님이 친히 친구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와 교육과 봉사의 모든 자리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수고가 허무로 바뀌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평가하기보다 세워 주는 말로 공동체를 지켜 내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세대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믿음을 부담이 아니라 생명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교사들과 리더들에게 사랑과 지혜를 주셔서 한 영혼을 끝까지 품게 하옵소서. 아이들의 질문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 주는 따뜻한 어른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을 향해 열린 문이 되게 하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시고, 말뿐 아니라 실제의 섬김으로 복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셔서, 분열이 아니라 연합으로, 경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이후에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제자 됨을 보이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모임이 은혜의 자리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첫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4 나라와 가정을 위한 중보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디모데전서 2:1)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불안이 쉽게 번지는 시대에, 교회가 두려움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로 서게 하옵소서. 뉴스와 소문에 마음이 요동칠 때, 우리가 먼저 무릎 꿇어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지혜를 주옵소서. 갈등을 부추기는 말보다 생명을 살리는 결정을 하게 하시고, 약한 이들이 먼저 보호받는 제도와 현장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반도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전쟁이 아닌 화해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그 가정에 보호와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비교와 성적의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부모의 말이 상처가 아니라 격려가 되게 하시고, 집안에 기도와 웃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환절기에 아픈 이들과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과정에 필요한 길을 열어 주시고, 경제적 부담과 마음의 지침 가운데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라와 가정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정직과 배려로 일상을 세워 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내일의 삶을 바꾸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작은 순종으로 평화를 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분노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첫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5 선교와 이웃 사랑을 위한 기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마태복음 28:19)

선교의 하나님,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다시 세상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음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흘러가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이 넓어져서 내 사정만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을 함께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언어와 문화의 벽 앞에서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시며, 사역의 열매가 현지 성도들의 믿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를 ‘후원’으로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중보’로 붙들게 하옵소서. 각 부서와 구역이 이름을 불러 기도하게 하시고, 작은 헌금과 작은 순종이 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먼 나라만 바라보다 가까운 이웃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직장과 학교, 아파트 단지와 골목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고, 진심으로 듣고, 필요한 손을 내미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사랑의 태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신뢰를 쌓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나눔이 보여 주기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받는 이의 존엄을 지키는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확인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가 우리를 “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발걸음을 열어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첫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6 치유와 위로를 구하는 기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에 나온 성도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웃는 얼굴 뒤에 숨겨 둔 눈물까지도 주님은 아시니, 이 시간 주님의 위로가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의 소리 사이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버티기만 하던 마음이 다시 소망을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 병상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통증과 두려움 가운데에도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치료의 과정에 지혜를 주셔서 회복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병으로 힘겨운 이들을 도와 주옵소서. 잠들지 못하는 밤과 이유 없는 불안 속에서 주님의 평강이 지켜 주시고, 필요할 때 상담과 치료의 문도 열어 주셔서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말로만 위로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걸어 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아픈 지체의 곁을 지키는 손이 되고,혼자가 아니라고 전하는 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관계의 상처로 지친 마음을 싸매어 주옵소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과 외로움이 있을 때, 주님이 친히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화해할 지혜와 기다릴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환절기와 연말로 향하는 바쁨 속에서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기도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예배가 쉼이 되게 하셔서 한 주를 견딜 힘이 아니라 살아낼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아멘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